

지방자치이후 도시민 지역편견의 범주화

오 관 석 (Oh, Kwan-suk) *
(E-mail : coffeonecup@naver.com)

논문접수일 : 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전북대학교
현직: 전북대 겸임 부교수

지방자치이후 도시민 지역편견의 범주화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당지역 도시민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오호감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하삼도(충청·전라·경상: 이하 하삼도) 지역 시민이 갖는 각 지역(강원·경기·충청·전라·경상·서울)대한 언어적 오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후 통계 분석하였다. 다음은 자녀의 배우자로서 지역출신의 호감도를 측정한 후, 정부별(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지역차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 영남지역 시민은 각 지역 언어적 오호도 범주에 긍정하였지만, 호남지역 시민은 동의하지 않았다. 호남에 대한 영남지역 시민 오호감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지역 시민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미미한 수준에서 응답하고 있다. 자녀 배우자 만족도에서 하삼도 지역 시민은 자신의 지역출신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 순위로는 한결같이 서울 출신을 선호하고 있었다. 정부별 지역차별에 대해서 김영삼정권기에는 호남지역 시민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김대중정권기에는 영남지역 시민이 많이 차별을 받았다는 분석결과이다. 다만 충청지역 시민은 김영삼정부 보다는 김대중정부에 비교적 덜 차별대우 받았다는 연구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의 언어적 오호도는 영남지역 시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호남지역 시민은 충청지역 시민에 비해서 낮은 오호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 배우자 호감도에서 각 지역 시민은 자신의 지역 시민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반면, 타 지역 시민은 비선호하고 있다. 지역차별에 인식도 영남지역 시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주 제 어] 지역 시민, 지역편견, 언어적 오호감, 지역차별

I. 서론

1. 연구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에서 지역 도시민의 지역감정¹⁾은 다차원적 측면에서 심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지역감정은 지역의식에서 시작하여 지역주의, 지역갈등, 지역차별, 지역편견, 지역격차, 지역의식, 고정관념 등 대체로 부정적 개념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지역감정의 접근은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분석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전제로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감정의 논의는 사회 심리적 접근과 정치·경제적 접근 또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접근으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 사회 심리적 접근 방법은 집단 간 갈등의 차원에서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Stephen 1985; Brigham 1971). 감정적 요소는 집단 성원에 대한 부정 또는 배타적 태도나 감정인 편견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을 근거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지역적 편견으로 나타난다. 인지적 요소는 내집단 성원 혹은 외집단의 성원에 대한 신념의 측면에서 고정관념으로 표현되어진다. 행동적 요소는 집단성원에 대한 보상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비언어적 행동은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행태적 성향인 차별대우로 구체화 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정치·경제적 접근 방법은 지역감정을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 발전과정에서 지역 간의 차이와 차별이 특정의 집단성원들의 가치를 박탈하거나 감정의

1) 지역감정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다. 지역감정의 용어적 함의는 지역주의(김욱 2004; 최영진 2001), 지역격차(이성우·임형백 2003; 김홍석 1989)에서부터 지역갈등(홍기용 2001; 정기선 2005), 지역의식(김재철 1996), 지역차별(김홍석 1989), 지역편견(김혜숙 1988; 홍영오·이훈구 2001), 고정관념(안신호 1988)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요소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어 지역감정이 발생한다고 한다(오수열 2005; 이정진 2003; 이갑운 2002). 이러한 현상은 가치의 배분에서 반사적 이익에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경제적 접근법(정근식 1997; 김성국 1999)이 지역감정을 발생케 하는 시기에 대해서 논란²⁾이 있지만 대체로 1960년대 이후로 보고 있다. 전병재(1990)는 지역감정의 접근에 있어서 “지역 간의 문제는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근거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적 문제가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지역감정의 이질화와 구조화시킨다고 본다. 정치적 측면에서 박찬욱(2000)과 조기숙(2000)은 “이념적 정책적 균열이 지역균열과 중복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최장집(1996)은 지역 간 불균등한 발전이 지역 시민 간 계급적 위계로 구조화된다고 한다. 김도중·김형준(2000)은 지역균열이 여·야간의 이념 균열과 융합하면서 이념적 기반을 갖는 지역균열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전통적 가치가 지역감정에 미치는 효과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신복룡(1996)은 지역감정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역감정의 연원을 삼국시대부터 유래하여 시대별로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지역감정은 호남지역의 차별이 형상화 되면서, 호남 포비아(phobia)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강조한다. 이소영·정철희(2003)는 전통적 가치³⁾를 유교주의에서 찾고

2) 신복룡(1996)은 한국의 지역감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지역감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근원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도 신라의 백제에 대한 보복행위로 보고 있으며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에서도 지역감정의 근원을 찾고 있다. 조선조에서도 호남지역과 호남지역출신에 의한 역성혁명에 대해서도 지역감정의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3) 전통적 가치는 유교주의 민간신앙 혹은 샤머니즘으로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다(Hong 1973; Berger 1988; Helgesen 1988; Koh 1996; Tu 1996). 이소영·정철희(2003)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유교주의로 보려는 시도는 가족제도나 교육 또는 국가에 대한 태도 등이 유교주의 문화의 주요 요소라고 한다.

있다. 유교주의는 인간관계와 조상숭배를 통한 공동체 유대를 강조하며 성리학을 통한 인간의 심성개발에 주목한다.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은 관계이며 문화라고 보고 있다.⁴⁾ 안완기(1999)는 지역감정은 역사적 사건, 자연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측면, 편중된 개발로 인해서 지역감정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전통문화와 유교가 지역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전통 속에 내재한 특수주의를 말한다.

전통적 문화와 혈연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는 특수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전통적 특수주의가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집단성원에 관용적 태도와 호의적 평가가 반대로 자기감정에 대한 대집단의 배타적 태도와 행동의 성향을 나타나게 한다(이소영·정철희 2003, 39).

지방자치실시이후 지역 시민의 지역적 편견과 차별인식의 태도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의 언어적 오호감은 지역 시민들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속성의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적 행동성향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

지역감정의 형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접근의 시도들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이론적 한계를 내포하면서 지역감정 문제해결에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감정의 형성에 원인과 사회적 배경을 해당 지역 도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지역 도시민의 지역감정에 대한 지역 시민의식과 차별적 성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4) 특히 한국 전통문화의 기본형성은 샤머니즘에서 찾는다. 민간신앙까지도 전통적 가치의 범주에 삽입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대체로 김태균(1995)은 샤머니즘이 민족의 전통문화에 유전되어 한국 전통문화의 기본형성에 핵을 이룬다고 보고, 유동식(1983)은 민간신앙을 포괄적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지역 도시민이 갖고 있는 지역감정에 대한 오호감을 알아보기 위해 하삼도 도시민을 선정한 후, 각 지역에 대한 언어적 오호감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하삼도지역 표본 추출을 위한 지역선정 문제이다. 우선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조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하삼도 지역을 선정할 후 해당 지역에서 도시 지역 간 거리와 인구밀도 그리고 95년 이후도·농통폐합된 도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시는 해당 도시의 3개 동과 도농통합되기 전의 군단위의 3개 면을 지정학적 거리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지정한 후 설문을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 대상인을 직접면접 조사 후 설문 받았다. 설문내용은 보기를 제시하고 각 해당지역에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적 오호감을 동시에 내용을 응답하는 것이다. 오호감의 질문내용은 비판적 견해와 우호적 견해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지역에 대한 오호감에 대한 심리적 판단에 의거 오호도를 설문 받았다.

하삼도 지역 도시민의 언어적 오호감은 지역적 편견에 대한 긍정·부정적 태도가 나타난다. 긍정적 지역편견은 지역 도시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를 유인하지만, 부정적 지역편견은 지역 시민에 오랫동안 무의식에 자리잡게 되고 의식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정적 지역편견은 지역 도시민 삶속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갖게 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지역 도시민의 인식의 판단을 요구하였다. 지역감정에 대한 상당한 연구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자신의 실질적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한 상대지역 시민의 자기 확신의 신념체계라고 한다(오관석 2007; 김범준 2002; 김혜숙 2001; 나간채 1990). 따라서 지역적 편견의 근원인 지역 도시민의 오호도와 지역감정에 내재된

가치판단의 신념체계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출신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자녀 배우자 혼인관계의 만족도를 묻는 내용이다. 자녀 배우자 호감도 측정은 혈연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지역감정을 배제하거나 초월하는 지역 도시민의 선택가능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감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경제적 불공평한 대우를 묻는 내용을 과거 정부(문민정부·국민정부)를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각 지역의 평가내용이 빈도수와 비율을 산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빈도 분석하여 상호비교하였고, 유의검증을 통하여 이들 간의 차이와 한계를 연구하였다.

II. 선행연구의 논의와 이론적 접근

1. 선행연구의 논의

지역문제의 차원에서 지역감정에 대한 접근은 지역갈등의 요소인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집단규범의 결과이고 다른 사람에게 편견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규범지각이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는 타인의 신념에 대한 함의적 정보를 조작하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변화를 밝히고 있다(Crandall & Eshleman 2002; Sechrist & Stangor 2001). 이들의 연구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지각된 함의 규범정보가 타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지역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영호남의 지역적 갈등의 문제나 지역감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문제해결보다는 사실적 실태조사나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스테판과 로드보르트의 동료들

(Stephan 1985; Rothbort et al. 1985)의 연구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인종 간 갈등해소에 미치는 접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들은 동등한 지위의 접촉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호되는 규범이 평등일 것과 상호존중적인 협동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접촉의 증가가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내놓는다.

지역감정을 집단 간 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정적 고정관념은 편견을 강하게 만들며, 편견은 다른 사람의 특질을 지각하고 기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Howard & Rothbart 1980). 편견과 고정관념의 태도가 집단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행동이 집단성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집단성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사회 심리적 연구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편견과 고정관념의 사회심리학의 동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민경환 1991).

한국적 현실에서 지역갈등은 각 지역집단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방법(나간채 1990)과 집단 간의 선호도 또는 오호도를 측정하려는 방법(이진숙 1959; 고흥화·김현섭 1976; 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김범준 2002)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의 연구는 피 실험자들을 내외 집단으로 구분하여 상호 지역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와 사회화 과정에서 세대 간 학습과 전이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학습과 전이과정의 직·간접적 경험이 지역감정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논의는 집단 간의 내적 심리적 지역갈등을 바탕으로 지역편견과 지역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가를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사회 정체성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평가와 지역출신에 따라 집단을 내외집단 범주화와 그에 다른 편파적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험을 통하여 연구해 낸다(Tajfel 1982; 송관재 1992; 김범준 2002). 이들의 연구는 출신지역에 따라 내적 외적집단 범주화는 각 집단에 대한 인상과 감정형성에 있어서 내집단에 편애에 영향을 주고 외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밝혀낸다. 이와 같은 인지 심리적 과정이 지역 시민에게 일어나

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가 박군석·한덕웅(2003)에서도 연구되어 지는데, 사회 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영호남 지역 시민들의 내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와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 인지 그리고 집단 정체성에 대한 상대적 집단박탈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호남지역 사람들은 영남지역에 비하여 지위가 낮고 이러한 지위형성과정도 합법적이지 않고 이러한 환경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호남지역 도시민들은 자기 지역과 동일시 한 지역정체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호남지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합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박군석·한덕웅 2002).

지역갈등을 지역 도시민이 갖는 감정적·인지적·행동적 차원에서 내외집단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기선(2005)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정기선(2005)은 각 지역 시민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1988년과 2003년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대체로 충청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만 호남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가장 낮다는 연구의 결과이다. 다만 호남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가 1988년보다는 2003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소영·정철희(2003)는 전통적 가치에 의한 지역감정의 연구에서 전통적 가치변수와 지역 간 거리감과의 상관관계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한다. 지역 간의 지역감정의 유형별 연구에서 호남인들이 가장 적은 지역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즉 호남인은 차별을 받지만 타지방 사람에 대한 편견을 평균적으로 적게 가지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영남지역 시민들 보다 충청·강원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특히 높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소영·정철희 2003, 44). 지역문제를 지역갈등적 차원에서 접근한 오수열(2005)은 지역감정이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지역편중, 경제개발 격차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다.

호남 지역사람들을 엘리트와 이익단체 그리고 지역 시민들로 분류

하여 지역편견을 분석한 지충남·오관석(2006)의 연구에서는 지역 시민들보다 엘리트계층과 이익집단의 대표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오히려 지역적 편견이 높게 나타나고 연구한다. 또한 고학력 및 고소득자에게서 그렇지 낮은 계층보다 더 지역편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에서도 고령일수록 높은 지역편견을 갖고 있으며 지역 시민의 외부인식과 타 지역 시민의 내부인식의 일치하는 지역편견의 지역감정화⁵⁾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감정을 지역편견이나 지역 고정관념화하는 연구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으로 표출되는데, 원한식(1987)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정치적 행태와 차별에서 정치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갈등이 심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역감정이 사회적 범주화하는 영향을 김범준(2002)은 대학생 집단을 한정하여 실험한 결과 자신의 출신지역과 타 지역 출신자의 비교 연구에서 내집단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유의미한 연구를 한다.

그동안 연구논의에서 지역편견, 지역갈등의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 효과만을 거둘 뿐 여전히 각종 선거와 지역 시민의 심리적 기저에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역 편견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이론적 접근

지역감정은 타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언어적 표현에서 해당 지역 시민을 악의적으로 무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편견의식과 고정

5) 호남인에 대한 지역편견에 의한 고정관념은 공격적·부정적 편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 1995, 187; 민경환 1991, 173-174; 이재열 외 2004, 205; 서경주 2002, 308).

관념은 인간의 사고의 인식체계에서 형성된 가치정향으로 정형화되어진다. 특히 지역 도시민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 풍습에서 유형화되어진다. 여기에 어투(사투리) 또는 각 지방에 알맞은 언어적 표현은 지역의 정체성과 배타적 성격을 내포하고 지역감정을 범주화해 왔다.

먼저, 지역감정의 범주화는 언어의 오호도 측정방법으로 지역감정의 원인을 밝히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진숙(1959)와 고희화(1976)는 오호도 측정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캐츠와 브래리(Katz & Braly 1933: 고연규 외 1991: 재인용)의 방법에 따라 20개의 주요 형용사를 제시한 후 타지역 시민의 특질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⁶⁾ 블렌차드 외(Blanchard et al. 1994)도 피실험인 백인에게서 흑인에 관한 5개설문항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설문에 조작적 응답을 요구해서 조사한다. 김혜숙(1988)은 지역 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에 대해서 긍정적 용어와 부정적 용어⁷⁾를 응답자에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오호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호남사람들이 타지역 시민에 배척이라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를 내놓는다. 한규석(1992)은 측정방법의 비교를 통해서 호남인의 고정관념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호남인이 특성에 맞는 13개의 형용사적 언어⁸⁾를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다른

- 6) 영호남 대학생들의 상호간 이미지의 선택은 영남인의 대 호남 남자의 선택은 단결력, 불신감, 강인함, 간사함, 고집성 등이고 여자의 선택은 단결력 불신감 거칠음 간사함, 이기적 등의 순서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에 호남인의 대영남인 남자의 선택은 수다성, 이기적, 보수적, 고집성, 단결력 등이고 여자의 선택은 수다성, 의리, 고집성, 단결심, 이기적 등으로 선택하였다.
- 7) 긍정적 용어는 단결력이 강하다, 호탕하다, 진취적이다, 의리가 강하다, 인정이 있다, 정이 많다, 개방적이다, 생활력이 강하다, 정의감이 강하다, 사교적이다, 근면성실하다, 친절하다, 똑똑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개인자질이 우수하다, 검소하다, 꼼꼼하다, 유순하다, 머리가 좋다, 등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용어는 무뚝뚝하다, 배타적이다. 뒤끝이 나쁘다, 이기적이다, 타산적이다, 보수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표리부동하다, 약삭빠르다, 인색하다, 간사하다, 개인주의적이다, 허세가 강하다, 성급하다, 고집이 세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실리적이다. 행동이 느리다, 반항적이다 및 소극적이다, 등이다.

측정법 보다 우월함을 확인한다.

한국방송개발원(1994)⁹⁾에서는 TV프로그램의 지역 이미지 분석연구에서 각 도인의 특성 및 선입관념을 내집단(자기도인)이 귀속시키는 특징과 타도인이 귀속시키는 특징을 25개의 성격기술 형용사들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후 선택하게 한다. 연구 결과, 지역별 고정관념을 밝히려는 조사가 오히려 특정지역에 대한 부정적, 편파적 견해를 ‘공인화’하는 경우가 많고 ‘고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지충남·오관석(2006)의 연구에서는 각 지역 시민의 편파적 언어에 대해서 강원도(감자바위(우), 경기도(들러리, 깡쟁이), 충청도(명청도, 곰통이, 핫바지), 경상도(TK·PK 마피아, 보리문둥이), 전라도(따블뺨, 깡두기, 깡쟁이, 개땅쇠) 등으로 편파적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충남·오관석(2006) 연구에서는 지역 시민에 오호적 언어에 대한 유형을 통하여 지역 시민이 갖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정기선(2005) 연구는 지역 시민에 대한 차별경험, 빈도의 경험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는다.

그런가 하면 이동호(1999)는 각 지역의 역사적 고사성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풀이한다. 예를 들어 충청인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는 뜻으로 “남을 앞서지도 뒤 처지도 않으며 떼가는 대로 내버려둔

- 8) 호남인이 갖고 있는 형용사적 언어 10개(생활력이 강함, 반항적임, 단결력이 강함, 고집이 션, 약삭빠름, 배타적임, 근면성실함, 영리함, 믿을 수 없음, 인정 많음)에서 3개(의리가 있음, 진취적임, 우유부단함)를 추가하여 13개의 특성차원을 선정하였다.
- 9) 한국방송개발원(1994)에서는 각 도인의 특성 및 선입관념을 아래와 같이 개념 규정하고 있다.

	지역 시민의 특성과 선입관념	
	내집단 귀속 특징	타집단 귀속 특징
서울	경우가 밝다, 깡쟁이다, 예의가 있다, 사교적이다	깡쟁이다, 간사하다,
경기	경우가 밝다, 온순하다, 의리가 있다	깡쟁이다, 온순하다
충청	온순하다, 의리가 있다, 고집이 세다	온순하다, 예의가 있다
호남	영리하다, 간사하다, 고집이세다	간사하다
영남	무뚝뚝하다, 의지가 굳다, 남성적이다, 의리가 있다	무뚝뚝하다
강원	온순하다, 성실하다, 예의가 있다	우둔하다

다”는 뜻이고, 강원도인은 암하노불(岩下老佛)이라는 뜻으로 “마치 부동자세의 부처처럼 어지간한 일에 움직이지 않고 순진하며 정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호남인은 풍전세류(風前細柳)로 “마음이 약하여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고, 경상도인은 태산교악(泰山喬嶽)의 뜻으로 “고집이 세고 우락부락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서울인은 경중미인(鏡中美人)의 뜻으로 “교제술은 능란하나 실속은 없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이동호 1999).

지역 도시민의 선호도는 지역 시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김진국 1988)과 좋고 싫은 감정을 측정하는 호오도(김혜숙, 1988)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지역 도시민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방법(나간채 1990)이 있다. 정기선(2005)은 지역갈등의 문제를 지역 시민에 대한 감정적 태도,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지 그리고 지역차별 경험의 정도를 통한 연구에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지역 도시민에 대한 선호도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갈등과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다. 이소영·정철희(2003)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감정을 연구하는데, 전통적 가치가 지역감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힌다. 김범준(2002)은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등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한다. 본 연구의 분석의 호오도 측정의 언어적 사용은 각 지역을 고려한 용어를 선택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특성과 알맞은 부정적 언어 6개와 긍정적 언어 6개를 범주화 10)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배우자 호감도의 측정이다. 김용학·김진혁(1990)은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에서 지역 간의 결혼 연결망을 통하여 지역

10) 각 지역 시민들의 호오적 언어의 6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부정적 의미에서, “타산적이다”(경기도), “우둔하다”(강원도), “막무가내다”(경상도), “우유부단하다”(충청도), “신뢰성이없다”(전라도), “이기적이다”(서울) 등을 해당 지역의 특색과 알맞은 언어를 택하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언어의 사용은 “운순하다”(강원도), “영리하다”(경기도), “의지가 굳다”(경상도), “성실하다”(충청도), “단결력 강하다”(전라도), “진취적이다”(서울) 등으로 개념 규정을 하였다.

간 결혼이 일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혜숙(2001)은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의 지역집단의 신념이 호감도보다 더 잘 예언해 주고 있는 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영남인과 호남인은 충청인보다 더 ‘주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김혜숙 2001, 12). 정기선(2005)은 지역감정과 지역갈등 인식의 변화에서 1988년과 2003년의 지역 시민의 선호도를 측정하였는데, 지역 시민의 선호도 순위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전라도 지역 시민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민하영·공인숙(2007)은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의 고향 분포에 따른 지역감정을 영호남을 중심으로 지역 이동의 구조와 투표행위와 관계를 분석한다. 공인숙·민하영(2007)은 영·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평가에서 영·호남지역 각각의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의 지역 시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타지역 시민에 대해서는 비호감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차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이 강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차별대우의 논의이다. 프리먼(Freeman, et al. 1981, 434)은 차별대우란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노병만(1998)은 지역차별을 지역할거주나 지역감정의 개념에서 경제·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정치구조개선을 강조한다.

지역감정의 원인이 되는 언어적 호오감은 열등적 차별화를 생산해 왔고 특정 집단에 대한 정신적 폭력으로 사용되었다. 호오 언어적 편견은 지역적 정체성과 배타적 범주화로 고착화되어진다. 이러한 범주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자녀배우자 선호도는 지역감정의 현상을 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또한 지역감정이 야기했던 지역차별에 대한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차별화에 어떻게 태도를 변화시켰는가를 조사연구 하여 비교 평가한다.

Ⅲ. 분석 내용과 결과

1. 하삼도 지역 도시민의 특성

한국 지역 도시민 조사자 전체 인원은 3213명이었다. 충청 지역 시민은 1067명, 호남 도시지역 시민은 1066명 그리고 영남 도시지역 시민은 1080명이다. 하삼도 지역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성비율과 연령, 학력수준별 그리고 거주기간 등으로 구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 지역 특성

	성비율						연령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남성	588	58.3	518	48.6	522	48.3	20대	247	23.1	226	21.2	230	21.3
여성	509	47.7	548	51.4	558	51.7	30대	263	24.6	239	22.4	232	21.5
총	1067	100	1066	100	1080	100	40대	249	23.3	210	19.7	227	21.0
							50대	133	12.5	141	13.2	182	16.9
	학력						거주기간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60이상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초졸	72	6.7	171	16.0	117	10.8	175	16.4	230	23.5	239	19.4	
중졸	125	11.7	115	10.8	128	11.9	0-9	213	19.9	182	17.0	182	16.9
고졸	420	39.3	334	31.3	338	34.1	10-19	179	16.7	197	18.4	194	18.0
전문대	126	11.8	99	9.3	180	16.7	20-29	264	24.7	241	22.6	285	26.4
대졸	271	25.3	282	26.4	249	23.1	30-39	162	15.1	152	14.2	139	14.7
대학원이상	25	2.3	29	2.7	24	2.2	40-49	139	13.0	120	11.2	129	11.9
기타	31	2.9	38	3.6	14	1.3	50이상	113	10.6	176	16.5	131	12.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삼도 지역 도시민의 남녀 성비율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3213명중에서 남성은 전체

1628명이고 여성은 1615명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남녀의 성비율은 비슷한 수준에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30대가 각각(충청: 24.6%), (호남: 22.4%), (영남: 21.5%)로 가장 많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고, 다음으로 20대가 각각(충청: 22.4%), (호남: 21.2%), (영남: 2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청지역 시민은 전체 응답자 1067명 중에서 30대가 263(2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23.3%)가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었다. 다음으로 호남지역 시민은 전체응답자 중에서 60대가 250명(23.5%)으로 가장 빈도비율이 많고, 다음으로 30대(22.4%)로 나타났다. 영남지역 시민은 30대(23.6%)와 20대(21.8%)로 조사에 응답해 주었다.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2.8%)와 40대(21.9%) 순으로 조사되었다.

하삼도의 학력수준을 묻는 내용은 대졸 이상이 호남이 가장 많은 311명(29.1%)로 다른 도시지역보다 학력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충청지역 시민이 296명(27.6%)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중에서 고졸이 가장 많은 빈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졸로 조사되었다.

하삼도 지역 시민의 거주기간을 묻는 내용은 충청지역 시민은 20년에서 30년이 가장 높은 빈도비율(24.7%)을 보이고 다음으로 10년 이하가 213명(19.9%)으로 조사되었다. 호남지역 시민은 20년에서 30년 사이가 241명(22.6%)으로 가장 높은 빈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0년 이하가 182명(17%)으로 나타난다. 영남지역 시민도 20년에서 30년 이하가 285명(26.4%)으로 조사되고, 다음으로 20년에서 20년 이하가 194명(18.0%)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20년에서 20년 이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년 이하가 783명(21.0%)으로 조사되었다.

2. 지역편견에 대한 오감도 측정

지역적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내용을 응답

자의 언어적 오감을 측정 한 내용이다.

<표 2>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 오감 평가

부정평가	타산적 이다	우둔하다		막무가내 다		우유부단 하다		신뢰성이 없다		이기적이 다.		chi-s q		
		응 답 수	%	응 답 수	%	응 답 수	%	응 답 수	%	응 답 수	%			
충청 지역	강원(718)	134	18.7	257	35.8	76	10.6	114	15.9	75	10.4	62	8.6	.414
	경기(716)	206	28.8	88	12.3	106	14.8	72	10.1	102	14.2	142	19.8	.105
	경상(719)	116	16.1	80	11.1	253	35.2	71	9.9	94	13.1	105	14.6	.080
	서울(727)	209	28.7	42	5.8	80	11.0	54	7.4	112	15.4	230	31.6	.244
	전라(727)	101	13.9	63	8.7	155	21.3	66	9.1	189	26.0	153	21.0	.074
	충청(745)	44	5.9	163	21.9	47	6.3	356	47.8	67	9.0	68	9.1	.009

* p<.10, ** p<.05, *** p<.01

<표 2>는 각 지역 평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응답한 내용이다. 빈도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만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 지역 시민의 응답의 결과 내용 중 “타산적이다”는 경기도 206명 (28.8%), “우둔하다”는 강원도 257명(35.8%)이고 “막무가내이다”는 경상도 253명(35.2%), “우유부단하다”는 충청도 356명(47.8%), “신뢰성이 없다”는 전라도 189명(26%), “이기적이다”는 서울 230명 (31.6%)이다. 이중 충청지역 시민들은 응답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빈도비율을 보이는 지역특성은 “우유부단하다” 충청도가 356명(47.8%)이다. 반면에 낮은 빈도비율은 전라도 지역 시민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가장 낮은 빈도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충청도 지역 시민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표현”을 가장 높게 응답해 준 반면 전라도 지역 시민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의 결과이다. 이들 간의 유의확률을 검증하는 P값은 충청도 지역 시민에 한해서 p<.01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충청도 지역 시민은 타 지역 시민에 대한 부정평가에 대한 편견은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반면 자신들의 지역 시민에 태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이다.

<표 3>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 오감 평가

부정평가	타산적 이다	우둔하다		막무가내 다		우유부단 하다		신뢰성이 없다		이기적이 다.		chi-sq		
		응 답 수	%	응 답 수	%	응 답 수	%	응 답 수	%	응 답 수	%			
호남 지역	강원(941)	131	13.9	344	36.6	125	13.3	134	14.2	117	12.4	90	9.6	.631
	경기(940)	325	34.6	79	8.4	138	14.7	104	11.1	138	14.7	156	16.6	.389
	경상(954)	160	16.8	88	9.2	200	30.4	65	6.8	157	16.5	194	20.3	.051
	서울(940)	290	30.9	34	3.6	73	7.8	95	10.1	145	15.4	303	32.2	.001
	전라(949)	80	8.4	144	15.2	204	21.5	280	29.5	151	15.9	90	9.5	.467
	충청(940)	77	8.2	272	28.9	78	8.3	299	31.8	110	11.7	104	11.1	.487

* p<.10, ** p<.05, *** p<.01

<표 3>은 호남 도시지역 시민의 응답의 결과이다. 호남지역 시민은 “타산적이다”라는 응답에 경기도 325명(34.6%), “우둔하다”에는 강원도 344명(36.6%), “막무가내이다”는 경상도 290명(30.4%), “우유부단하다”는 충청도 299명(31.8%), “신뢰성이 없다”는 경상도 157명 (16.5%), “이기적이다”는 서울이 303명(32.2%)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호남지역 시민은 “신뢰성이 없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전라도 지역 시민을 범주화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경상도 지역 시민 157명 (16.5%)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적어도 호남지역 시민은 자신들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는 언어적 호의감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결과이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간의 유의확률을 검증하는 p값은 서울 지역만을 제외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표 4>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 오감 평가

	부정평가	타산적 이다		우둔하다		막무가내 다		우유부단 하다		신뢰성이 없다		이기적이다.		chi-sq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영남 지역	강원(644)	120	18.6	285	44.3	65	10.1	112	17.4	37	5.7	
	경기(648)	259	40.0	69	10.6	58	9.0	72	11.1	83	12.8	107	16.5	.000
	경상(692)	43	6.2	73	10.5	342	49.4	151	21.8	39	5.6	44	6.4	.026
	서울(685)	180	26.3	26	3.8	30	4.4	38	5.5	75	10.9	336	49.1	.011
	전라(685)	73	10.7	47	6.9	89	13.0	70	10.2	240	35.0	166	24.2	.000
	충청(647)	48	7.4	197	30.4	71	11.0	202	31.2	65	10.0	64	9.9	.014

* p<.10, ** p<.05, *** p<.01

<표 4>는 영남지역 시민의 응답의 결과이다. 영남지역 시민은 “타산적이다”라는 질문에 경기도 259명(40.0%)으로 응답하였고, “우둔하다”는 강원도 285명(44.3%), “막무가내이다”는 경상도 342명(49.4%), “우유부단하다”는 충청도 202명(31.2%), “신뢰성이 없다”는 전라도 240명(35%), “이기적이다”는 서울 336명(49.1%)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영남지역 시민은 자신들의 평가에 있어서 “막무가내다”라는 응답의 비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차이를 묻는 내용에서는 강원도 지역만을 제외하고 p<.05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도는 p>.0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남지역 시민은 충청지역 시민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대한 오호도 평가에 대한 범주화에 비슷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지역편견에 대한 호감도 측정

다음은 지역적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내용을 응답자의 언어적 호감을 측정한 내용이다. 각 지역 시민이 해당지

역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하나씩 선택한 응답 결과의 내용이다.

<표 5>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 호감 평가

	긍정평가	온순하다		영리하다		의지가 굳다		성실하다		단결력 강함		진취적이다		chi-sq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충청 지역	강원(711)	229	32.2	87	12.2	119	16.7	146	20.5	64	9.0	
	경기(696)	56	8.0	230	33.0	105	15.1	107	15.4	65	9.3	133	19.1	.384
	경상(700)	52	7.4	82	11.7	203	29.0	113	16.1	142	20.3	108	15.4	.564
	서울(703)	29	4.1	296	42.1	80	11.4	72	10.2	75	10.7	151	21.5	.248
	전라(714)	51	7.1	63	8.8	115	16.1	63	8.8	332	46.5	90	12.6	.001
	충청(728)	347	47.7	31	4.3	58	8.0	167	22.9	56	7.7	69	9.5	.071

* p<.10, ** p<.05, *** p<.01

<표 5>는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에 대한 호감 평가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빈도비율 가장 높은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지역 시민의 응답한 내용에서 “온순하다”가 충청도 347명(47.7%), “영리하다”는 서울 296명(42.1%), “의지가 굳다”는 경상도 203명(29.0%) “성실하다”는 충청도 167명(22.9%), “단결력이 강하다”는 전라도 332명(46.5%), “진취적이다”는 서울이 151명(21.5%)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충청지역 시민은 자신들이 온순하고 성실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적 호감에 대한 범주화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들 간의 유의확률을 검증하는 p값은 전라도 지역 시민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표 6>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 호감 평가

호남 지역	증정평가	온순하다		영리하다		의지가 굳다		성실하다		단결력 강함		진취적이다		chi-sq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강원(944)	333	35.3	83	8.8	204	21.6	166	17.6	88	9.3	70	
경기(942)	83	8.8	267	28.3	160	17.0	142	15.1	87	9.2	203	21.5	.160	
경상(944)	62	6.6	133	14.1	228	24.2	100	10.6	305	32.3	116	12.3	.001	
서울(942)	46	4.9	390	41.4	82	8.7	96	10.2	79	8.4	249	26.4	.066	
전라(955)	152	15.9	98	10.3	143	15.0	187	19.6	303	31.7	72	7.5	.057	
충청(936)	365	39.0	65	6.5	105	11.2	206	22.0	87	9.3	108	11.5	.082	

* p<.10, ** p<.05, *** p<.01

<표 6>은 호남지역 시민의 응답 결과이다. 응답의 내용에서 “온순하다”는 충청도가 365명(39.0%) “영리하다”는 서울 390명(41.4%), “의지가 굳다”는 경상도 228명(24.2%), “성실하다”는 충청도 206명(22.0%), “단결력이 강하다”는 경상도 305명(32.3%), “진취적이다”는 서울 249명(26.4%)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충청도 지역 시민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로 충청인은 “온순하다”와 “성실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경상도 지역 시민에 대해서는 “의지가 굳다”와 “단결력이 강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충청과 영남 지역 시민에 대한 언어적 호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지역 시민에 대해서는 그 어느 평가도 가장 높은 빈도로 범주화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미한 수준에서 “단결력이 강하다”라는 응답이 경상도 다음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들 간의 유의확률은 경상도 지역 시민에 대해서만 p<.01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도 지역 시민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타 지역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동일한 응답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7> 도시 지역 시민의 해당지역 호감 평가

영남 지역	증정평가	온순하다		영리하다		의지가 굳다		성실하다		단결력 강함		진취적이다		chi-sq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강원(642)	308	48.0	58	9.0	85	13.2	121	18.8	27	4.2	43	
경기(622)	70	11.3	251	40.4	78	12.5	55	8.8	29	4.7	139	22.3	.063	
경상(670)	54	8.1	48	7.2	242	36.1	190	28.4	84	12.5	52	7.8	.083	
서울(644)	31	4.8	276	42.9	45	7.0	56	8.7	37	5.7	199	30.9	.042	
전라(660)	17	2.6	50	7.6	84	12.7	27	4.1	449	68.0	33	5.0	.078	
충청(634)	260	41.0	27	4.3	96	15.1	128	20.2	44	6.9	79	12.5	.112	

* p<.10, ** p<.05, *** p<.01

<표 7>은 영남지역 시민의 응답 내용이다. 응답의 결과 중에서 “온순하다”는 강원도 308명(48.0%), “영리하다”는 서울 276명(42.9%), “의지가 굳다”는 경상도 242명(36.1%), “성실하다”는 경상도 190명(28.4%), “단결력이 강하다”는 전라도 449명(68.0%), “진취적이다”는 서울 199명(30.9%)으로 조사되었다. 영남지역 시민은 자신들이 “의지도 굳고 성실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단결력은 전라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가 하면 경기도는 언어적 호감에 어느 영역도 높은 빈도 비율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간의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도 각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만 서울만 p<.05로 미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4. 자녀결혼 호감도 측정

언어적 호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해당 지역출신의 자녀 배우자 선호도를 물었다.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해당지역 시민에 호감도를 묻는 내용이다.

<표 8> 지역출신 호감도 측정

	강원도출신		경기도출신		경상도출신		서울 출신		전라도출신		충청도출신	
	척도	chi-sq	척도	chi-sq	척도	chi-sq	척도	chi-sq	척도	chi-sq	척도	chi-sq
충청지역	2.97	.154	3.24	.692	3.01	.482	3.29	.003	2.68	.708	3.56	.047
호남지역	2.98	.499	3.28	.494	2.81	.821	3.45	.668	3.61	.009	3.20	.434
영남지역	3.08	.109	3.26	.263	3.57	.442	3.40	.000	2.48	.003	3.11	.328

* p<.10, ** p<.05, *** p<.01

<표 6>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응답자의 지역출신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된 내용이다. 충청지역 시민은 같은 충청도 출신을 가장 선호(3.56)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지역 출신(3.29)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 시민을 가장 배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 지역 시민은 같은 전라도 출신을 가장 선호(3.61)하고 다음으로 서울출신을 선호(3.45)로 응답하였다. 반면 호남 지역 시민은 경상도 출신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남지역 시민은 같은 지역출신인 영남 출신을 가장 선호(3.57)한다고 응답하고, 다음으로 서울출신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가장 배척하는 지역은 전라도 지역 시민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별 선호도는 서울출신이 가장 높은 응답(3.40)을 받고 있는 반면, 호남 출신은 가장 낮은 응답(2.89)을 받는다. 따라서 각 지역 시민들은 자녀 배우자 호감도에서는 서울출신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호남 지역출신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간의 유의확률을 검증은 충청지역 시민이 p<.05의 수준에서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인숙·민하영(2007)의 연구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다. 다만 공인숙·민하영(2007)연구에서는 자신의 지역 시민 영남인(3.27)이고 호남인(2.60)인 반면, 호남인은 자신 지역 시민(3.39)이고 영남인(2.49)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도 영호남 지역 시민들은 상대지역에 대한 비교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고인숙·민하영(2007)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지역 시민 차별대우 측정

하삼도 지역 도시민이 갖고 있는 지역감정에 원인이 되는 지역차별에 대한 조사이다. 특히 정부의 교체기에 해당지역 시민이 갖고 있는 지역차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이다.

<표 8> 지역 시민 차별대우 측정

차별대우	도별	N	Mean	Std. Deviation	F	Sig.
	호남지역	1068	3.87	1.201	.554	.457
	영남지역	1080	2.74	1.136	.089	.765
국민정부(김대중) 이후 차별대우	충청지역	1070	3.06	1.228	5.780	.016
	호남지역	1068	2.87	1.165	13.647	.000
	영남지역	1080	3.41	1.305	103.328	.000

* p<.10, ** p<.05, *** p<.01

<표 8>은 각 도별 지역 시민들의 정부별(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차별대우를 묻는 내용이다. 즉 얼마나 정치·경제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가와 정부 교체이후 이러한 차별에 인식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내용이다.

먼저 충청 지역 시민들은 김영삼 정부보다 김대중정부 이후 차별대우가 적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호남 지역 시민들은 문민(김영삼)정부 때에는 가장 높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이후 차별대우가 낮아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영남 지역 시민들은 김영삼 이전에는 차별대우가 가장 적었다고 응답하였지만 김대중 정부이후에는 차별대우가 가장 컸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사이에 영남지역 시민과 호남지역 시민의 차이가 상호 교차하는 지역차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김대중정부 이후 차별대우에 대해서 호남지역 시민과 영남지역 시민들이 유의미한 차이($P<.000$)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지역차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영호남 지역 시민들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상대적 비교에서 그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 충청도 지역 시민도 김영삼 정부보다 김대중 정부에서 차별대우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교체가 지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수위도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정리

이상 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에 대한 언어적 오호감을 측정하였다. 먼저 지역적 편견을 묻는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타산적이다(경기)”, “우둔하다(강원)”, “막무가내이다(경상)”, “우유부단하다(충청)”, “신뢰성이 없다(전라)”, “이기적이다(서울)”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기지역만 제외하고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범주화 되어 있다. 특히 하삼도지역 시민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호남지역 시민은 자신들이 부정평가 개념인 “신뢰성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남지역 시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국 충청·영남지역 시민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stero type)화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나, 호남지역 시민은 자신들이 “신뢰성이 없다”라는 스테레오 타입은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영남 지역 시민이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호남인들은 거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다음은 긍정평가에 대한 분석의 결과도 “온순하다(충청)”, “영리하

다(서울)”, “의지가 굳다(경상)”, “성실하다(충청)”, “단결력이 강하다”(전라), “진취적이다(서울)”로 분석되었다. 다만 호남인들은 자신들이 “단결력이 강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미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삼도 지역 시민들에 지역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긍정평가도 역시 호남지역 시민만을 제외한 충청·영남지역 시민에 대한 고정관념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삼도 지역시민들은 각각의 5가지 유형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유형화 하고 있지만 호남인들만 미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숙(2001)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시민들의 지역 편견의 판단은 지역 시민에 대한 감정보다는 기존의 지역고정관념에 의해 더 잘 예측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 결혼 호감도에서 자신의 지역출신자에 대해서 가장 호감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삼도 지역 시민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 시민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 김진국(1988)연구와 김혜숙(1988)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각 지역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해서는 외집단보다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호남지역은 타 지역집단에 의해서 가장 비 선호하는 호감도를 내타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용학·김진혁(1990)은 지역 간 결혼 관계적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호남인은 타 지역 시민과 결혼비율이 가장 낮고 지역출신과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김범준(2002)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을 타지역 출신자들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방송개발원(1994)의 연구조사 보고에서 시기별 각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의 변화에 따르면 이진숙(1959년)연구와 고흥화·김현섭(1976)조사 그리고 김혜숙(1988)연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부정적 편견은 상당한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다. 다만 호남지역 시민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호감이

나 비호감을 타 지역 시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호남지역 시민에 귀속된 부정적 특성들은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경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역차별에 대해서는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영남인과 호남인들 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충청지역 시민만은 김영삼정부 보다는 김대중정부에서 지역차별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낮았다는 분석의 결과이다. 지역차별의 원인은 김만홍(1992)의 연구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권력의 지역패권 및 지역주의 정부에 있다는 결과이다.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에 대한 차별화가 이번 연구에서 확연하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연구결과이다. 다만 홍성웅(1990)연구에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지역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김만홍(1987)은 주로 영호남 지역갈등의 현실적 요인과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결과 호남인들은 지역연구가 오히려 사회적 진출의 방해가 된다는 지각에 피해의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호남인들이 가정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에 상대적으로 덜 유형화 되어 있으며, 타 지역 시민들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오히도 정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지방 자치단체 지역 도시민에 있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지역편견과 고정감정은 타 지역 시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 왜곡된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의 산물이다. 지역감정에 대해서 최장집(1994)은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성장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지역감정의 핵심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호남을 배제하는 전국적인 정치연합'으로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복룡(1996)은 지역감정은 호남의 한이 분출하는 에포크(epoch)나 호남 포비아(phobia)요인으로 까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는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오히도 측정에서 호남지역 시민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덜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선호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영남지역 시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히도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박용남(1991)는 연구에서 보여 주듯이 지역문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의 영·호남 간 지역감정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상대적(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김진국(1988)은 지역감정은 영호남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호남과 나머지 모든 지역 간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김혜숙(1988)도 지역 간 고정관념과 편견이 주로 호남인에 대한 타 지역 도시민의 배척이라는 양상을 띠는다고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호남인들이 가정 지역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낮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김범준(2002, 5)연구와 같이 지역감정의 문제가 다분히 호남과 다른 여타지역의 문제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역감정의 원인은 영남지역 시민이 상대적으로 호남인들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는 결과이다. 물론 호남지역 시민 또한 영남지역 시민에 대한 상대적 비호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호남지역 시민은 타 지역 시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어도 타 지역 시민들이 대립경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호남인에 대한 매우 편파적인 행동의사를 보인다는 주장(김혜숙 1988, 59)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호남인들은 내집단 선호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타 지역구분에 의한 차별적 태도(김혜숙 1988, 58)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이다.

지역차별은 김영삼·김대중정부 간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호남지역 시민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영남지역 시

민이 상대적 차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지역 시민은 김영삼 정부 보다는 김대중정부가 상대적으로 차별대우가 낮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영진(2001)연구에서도 제16대 총선투표 결과 분석에서 충청권은 지역주의가 완화된 반면, 영남권은 지역주의가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역감정은 단순히 감정적 결과가 아니라 배타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의 효과이다. 지역감정은 지역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지배적 의식으로 발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사회 범주화되면서 지역감정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도 타 지역 시민들의 호남인에 대한 편향된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이 유형화되면서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의 소산으로 발전된 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의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 지역감정의 원인이 되는 지역편견과 고정관념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일부의 연구 논의가 호남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고연규·이명남·김춘환, 1991, “지방화 시대에 따른 영호남 균형 발전과 지역감정 해소책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제30호, 285-310.
- 고홍화·김현섭, 1976, “한국인의 지역적 편견,” 고홍화 편,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289-300.
- 공인숙·민하영, 2007, “영·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권 1호, 159-167.
- 김도종·김형준,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 제34집 2호, 105-127.
- 김범준, 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집 1호, 1-18.
- 김성국, 1999,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불안정과 시민권력의 형성,” 김일철 외 저,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299-343.
- 김용학·김진혁, 1990,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 결혼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4집 1호.
- 김 욱, 2004, “한국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가능성: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1호, 83-105.
- 김진국, 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편, 춘계심포지움.
- 김만흠, 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 김재철, 1996, “한국정치에 있어서 지역감정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균, 1995, “전통사상과 한국정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1988,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춘계심

포지엄.

-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 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집 1호, 1-161.
- 김홍석, 1989, “지역감정의 사회학적 이해,”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간채, 1990,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79-105.
- 노병만, 1998,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 분석: 지역감정·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 『한국정치학회』, 제32집 1호, 59-85.
- 민경환, 1991, “사회심리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 역사형성에의 참여,” 『한국심리학회심포지움2』, 한국임상심리학회.
- 민하영·공인숙, 2007, “청소년과 부모의 지역감정 관계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28권 4호, 277-287.
- 박군석·한덕웅, 2003, “영·호남인의 사회구조요인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적 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7집 2호, 59-723.
- 박찬욱, 2000, “4·13 총선의 정치적 의의,” 『4·13 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 분석』, 문형, 295-315.
- 박상병, 2000, “4·13총선 결과와 정당체계: 변화와 한계,” 『4·13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분석』, 문형, 173-293.
- 송관재, 1992, “지각적 특출성과 내외집단편파가 개인의 착각상관에 미치는 영향: 기억추론과 온라인 추론과정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복룡, 1996, “한국 지역감정의 역사적 배경: 호남 포비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의 재성찰, 110-139.

- 안신호, 1988,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지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3-36.
- 안완기, 1999,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역감정 해소방안: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권 2호, 211-236.
- 원한식, 1987, “한국정치에 있어서 영호남 지역감정,” 『정책과학논총』, 사회과학연구원, 제3집 123-140.
- 오관석, 2007, 『지방 정치문화와 참여』, 한국학술정보(주).
- 오수열, 2005,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그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제15집 2호, 61-83.
- 유동식, 1983, 『한국무속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집 2호, 155-178.
- 이동호, 1999, 신념 좌담회:<지역감정 해소는 이렇게> “영,호남인은 지역굴레 벗어나 적의없는 의학(戲謔)으로 감정풀라,” 『한국논단』, 한국논단.
- 이소영·정철희, 2003, “전통적 가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 제37집 5호, 31-5.
- 이성우·임형백, 2003, “편견 및 편향적 지역개발 가성의 유효성: 주거 밀도를 적용할 경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5권 2호, 91-112.
- 이정진, 2003, “정당연합과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19집 3호, 111-138.
- 이진숙, 1959, “8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견관념,” 『사상계』, 12, 74-87.
- 정근식, 1997, “불균등 발전과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 담론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285-317.
- 전병재, 1990,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한국사회학회 편, 『한

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정기선, 2005,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인식의 변화: 1988년과 2003년 비교,” 『한국사회학』, 제39집 제2호, 69-103.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도서출판 나남.

지충남·오관석, 2006, “호남 중·소도시민의 지역편견에 대한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21-50.

최영진, 2001,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1호, 149-166.

최장집, 1996,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역감정,”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도서출판 나남.

한국방송개발원, 1994, “TV프로그램의 지역 이미지 분석연구,” 『연구보고97-17』, 한국방송개발원.

한석규, 1992, “측정방법의 비교를 통한 지역 고정관념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6집 2호, 168-185.

홍기용, 2001,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요인에 관한 고찰: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13권 2호, 81-94.

홍영오·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집 1호, 185-204.

Berger, P., 1988,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in Peter Berger & Hsin-Huang Hsiao (eds.),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d.

Brigham, J. C., 1971, Ethnic stereotyp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76. 15-38.

Blanchard, F. A., Crandall, C. S., Brigham, J. C. & Vaughan, L. A., 1971, Condemning and condoning racism: A social context approach to interracial set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993-997.

Crandall, C. S., Eshleman, A., & O' Brien, L. O., 2002, Social norms and the expression and suppression of prejudice: The struggle for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59-378.

Howard, J. W., & Rothbart, M.,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 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301-310.

Helgesen, G., 1988, *Democracy and Authority in Korea*, New York: Sr. Martin's Press.

Hong, Yi-sup, 1973, *Korea's Self-identit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Katz D. & Braly K., 1933, Racial Prejudice and Racial Stereotyp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28, 280-290.

Koh, Byong-ik, 1996, "Confucianism in Comtemporary Korea", in Tu Wei-ming (eds.),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thbort, M., & John, O. P.,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Behavioral episodes: A cogni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1, 81-104.

Sechrist, G. B., & Stangor, C., 2001, Perceived consensus influences intergroup behavior and stereotype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45-654.

Sechrist, G. B., & Stangor, C., 2002, Stereotypes and prejudice as social nonns. In C. S. Crandall & M. Schaller(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Historical perspectives*. Seattlet W A : Lewinian Press.

Lippman Walter, 1950, *Public Opinion* (New York : The

Macmillian Company). 79-103.

Jonathan, L. Freedman, David O. Sears, and J. Merrill Carlsmith, 1981,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464-473.

Stephen, W. G., Intergroup relation, In G. Lindzey & E. Aronson(Eds.), 1985,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Random House, 599-659.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1-39.

Tu, Wei-ming, 1996,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Categorization for the Prejudice of Citizens in the Local Autonomy

Oh, Kwan-su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a affection for the dislike-like of language on which was effected the categorization of the prejudice and stereotype in three local residents(Chungchong · Homan · Kyungsang). This paper at first, was analyzed on survey in other to measure the degree of the dislike-like of language that local residents have concerned with each regions. Next, after it was measured the degree of dislike-like as a life partner of his children, comparatively analyzed the degree of discriminations in each regimes(Kim, Yuongsam and Kim, Daejuong's governments).

As a result, local residents of Chungchong and Youngnam approbated the categorization about a affection for the dislike-like of language, but Homan did not. While residents of Youngnam which has the dislike-like for Honam is the highest level, Honam's residents in a little level was comparatively responded to other regions. The degree of contentment on his children parter was to prefer regions of themselves to others', then all residents of regions liked Seoul people. In the discriminations at each regimes, it was showed much more the differentiations that Honam residents was received treatment in the period of Kim, Youngsam'

government, than the discrimination which Youngnam residents was received treatment in the period of Kim, Daejuong' government. It was a result to study that Chungchong' residents was received less treatment in Kim, Daejuong' government than in Kim, Youngsam'.

The degree of which has dislike-like each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come out more highly to Youngnam's residents than to the other residents, the degree of which has dislike-like showed more lowly to Honam's residents than to Chuongchong's. In the good feeling of his children parter's, each residents have the best effect of preferences to themselves, the other side don't have the effect of preference. In the degree recognition, it was results to study a comparative highly revel in Youngnam residents.

Key words : Regional Prejudice, Stereotype, Dislike-like of Language, Residents, Discrimination